

2023

[문화 포럼] 의정부시 - 신한대학교

전환의 시대를 넘어, 의정부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하다

2023. 4. 25.(화) 14:00~16:50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원형극장)

주최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주관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 의정부



행사일정표

1부	14:00	14:20	개회인사, 내빈소개 및 인사말	사회자
	14:20	14:40	발제1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발전의 비전과 전략 의정부시 문화가 나아가야할 방향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
	14:40	15:00	발제2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예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 2022년 의정부예술인공론장 결과를 중심으로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15:00	15:10	휴식 & 토론 준비	
2부	15:10	16:40	종합토론 & 질의응답 토론자 김지훈 _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팀장 남영호 _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박상순 _경민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 박정근 _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좌장 :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6:40	16:50	폐회 & 안내	사회자



CONTENTS

발제1.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3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

발제2.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예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45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토론문1.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65

남영호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토론문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언 71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토론문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예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77

박상순 경민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

**토론문4. 지역예술의 성장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지역예술가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찾기 81**

김지훈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장

발제1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

「의정부시·신한대학교 문화 포럼」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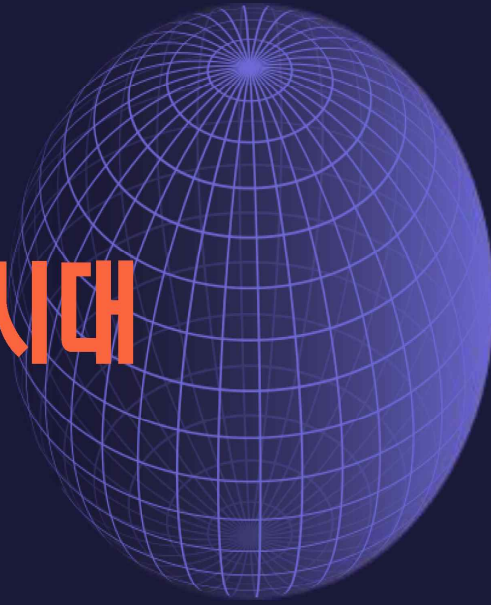
김태우 교수(신한대)

발표 순서

1. 대전환의 시대, 의정부 지역문화 어디로 갈 것인가?
2.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양상과 한계
3. 마을 문화의 문명론적 가치와 지역문화에서의 위치
4. 의정부시 지역문화의 영역
5.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6. 의정부시의 문화가 가야할 길



대전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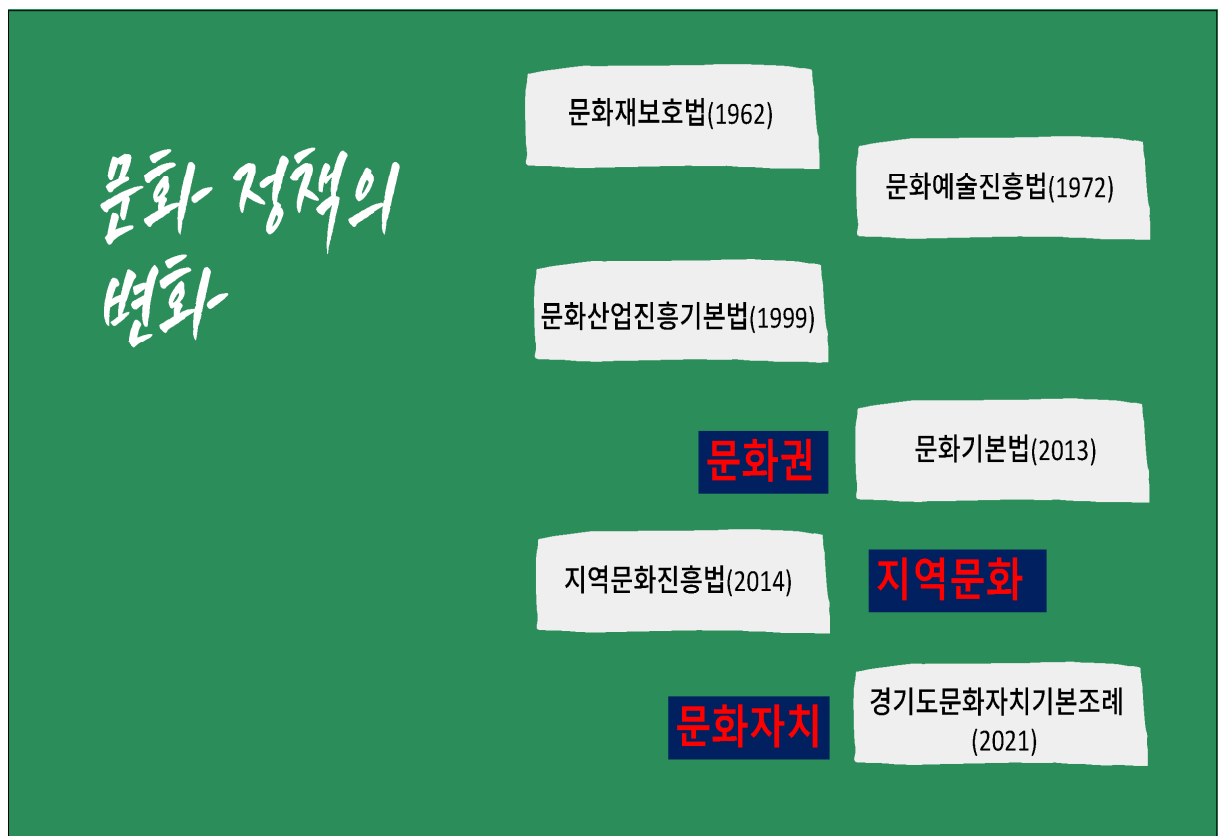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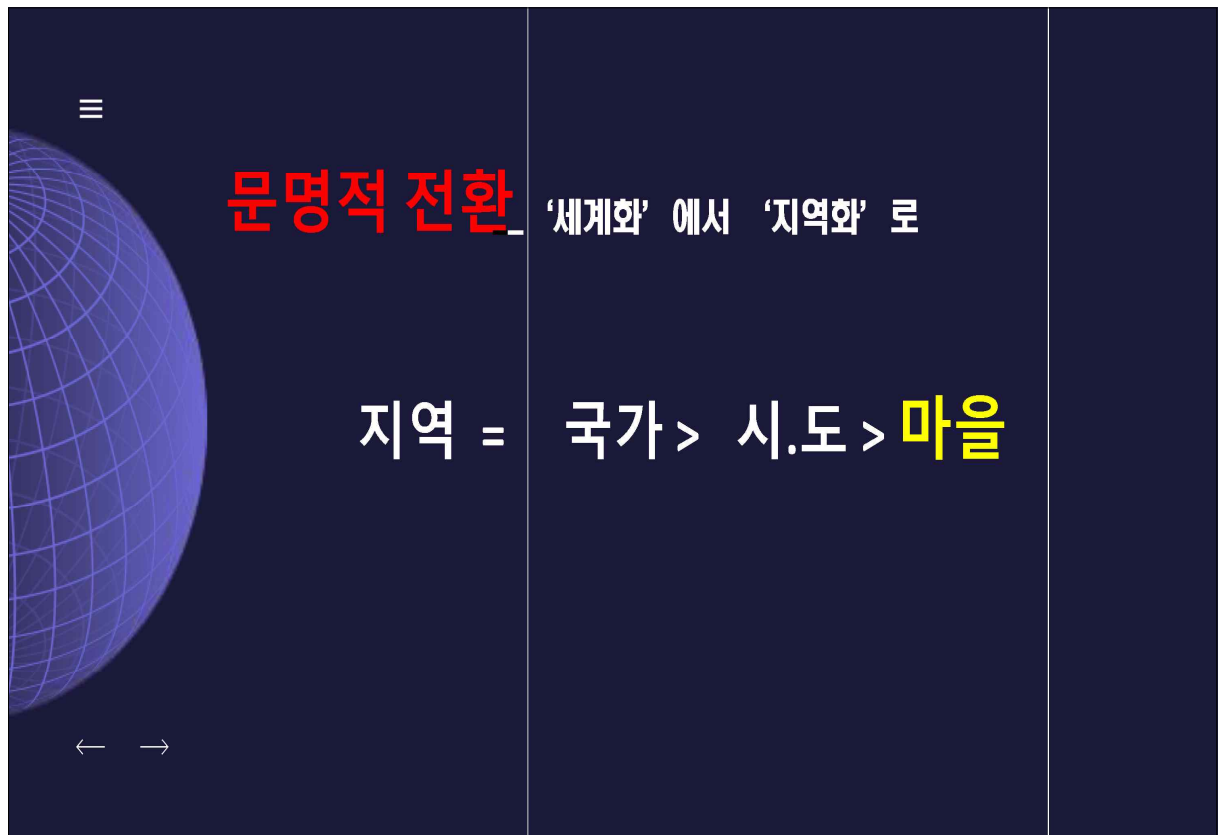
생태적 전환 _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면전 전환

철학적 전환 _ 행복지수의 추구

경제적 전환 _ 대안자본주의

문명적 전환 _ '세계화' 에서 '지역화' 로







문화권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자치

문화 정책과 집행 과정에서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



영역	전환 전		전환 후
문화정책의 중심	중앙정부	⇨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역점 과제	국민의 문화예술	⇨	지역문화
문화정책의 철학	계승과 창달	⇨	문화자치, 문화권



최공 지역문화 발전 전략

1.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2023. 3.)

문제점: 지역간 문화 격차, 문화의 획일화, 지방 소멸로 인한 문화 쇠퇴

키워드: 다양성, 접근성, 고유성, 균형, 지역 활력 등

사업: '우리동네 캐릭터', '찾아가는'(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 사업, '지역문화자산'(보존, 발굴, 매력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 문화 기반 시설 이전 및 확충, '지역 활력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최공 지역문화 발전 전략

2. 경기도의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문제점: 문화 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도민의 문화 정책 참여 소외, 경기 남북부의 문화 격차

키워드: 문화자치, 문화주체, 공정, 문화유산(자원), 경기도사, 콘텐츠, 관광

사업: 문화자치 조례 제정(2021년), 문화예술교육, 공정경쟁협약, 세계유산 추진, 경기도 역사 편찬원 설립 추진, 문화 클러스터 조성, 생태관광 거점 조성

최근 지역문화 발전 전략

3. 의정부시의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문제점: 예산과 문화기반시설 미약(9개), 문화참여와 향유 기회 부족, 문화 격차 존재, 전담 인력 부족

키워드: 거버넌스, 문화인력, 시민네트워크, 거점공간, 지역특화문화, 아카이브

사업: 문화도시지원협의체, 예술기획학교, 문화거점공간 지원, 시민뜻대로 문화조례 제정,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한계

1.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방안의 미흡
2.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
3. ‘문화주체’ 들의 대표성과 소외 문제
4. ‘지역’ 과 ‘지역문화’ 에 대한 인식 부족



최근 주목할 만한 경향

1. 지역문화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

마을지 발간 사업 확산
마을 기록화 사업
의정부문화원 권역별 마을지 발간 사업 시작



최근 주목할 만한 경향

2. 인문학(인문도시)에 대한 관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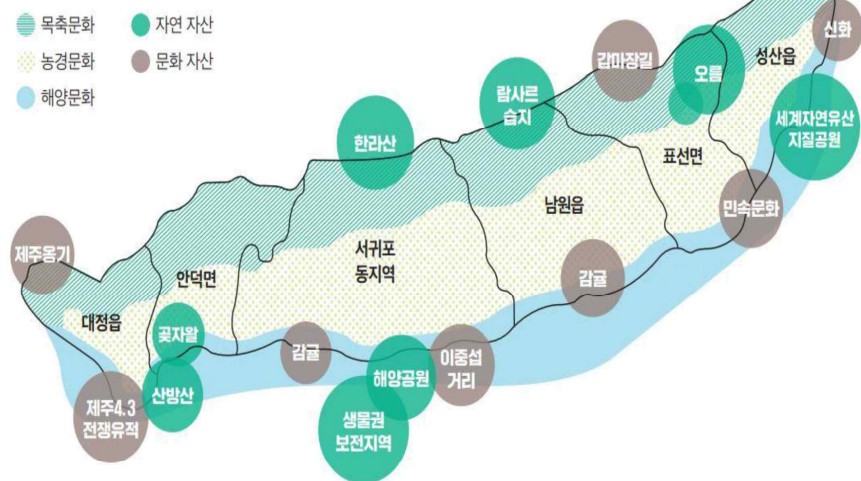
수원학, 용인학, 이천학, 의정부학...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 제정
36개 지자체 인문학진흥조례 제정
10여개 지자체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정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20호	2014. 11. 13.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556호	2023. 2. 8.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30호	2013. 3. 11.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44호	2021. 12. 16.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98호	2019. 8. 28.
6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85호	2022. 8. 16.
7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45호	2022. 2. 11.
8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3213호	2020. 7. 10.
9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4209호	2021. 9. 28.
10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제2290호	2015. 4. 1.

최근 주목할 만한 경향

3. 마을 문화의 가치 인식

도시 문화가 아닌 마을 문화에 집중
제주 서귀포시 '노지문화', 2023년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
마을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제시



마을 문화의 문명론적 가치

마을이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자치적 체계에 의해
생업, 의례, 노동, 상호부조, 여가, 생태 등이 공유
혹은 운영되는 공동체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

마하트마 간디가 도시 문명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마을 문명' 제시

'마을 스와라지(Village Swaraj)', 즉 마을 자치를 통해 외부적인 통제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립을 이루자고 주장

마을 문명을 도시 문명과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

출처: 픽사베이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발견한 라다크의 '문명'

- 땅과 함께 살기: 재순환, 검약
- 의사와 샤만: 가게로 세습된 마을 의사, 진맥과 천연 약물의 치료, 점성가와 샤먼, 건강한 노년
- 함께 사는 지혜: 공존, 민주적 마을회의, 100호 이하의 규모, 협동, '파스푼'(일생의례 조직), '추쭈'(소집단 노동 조직), '라레스'(공동 가축 돌보기), 사유재산의 공유(오두막, 물레방아, 축력 등)

출처: 픽사베이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

마을 공동체와 행복지수의 관련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B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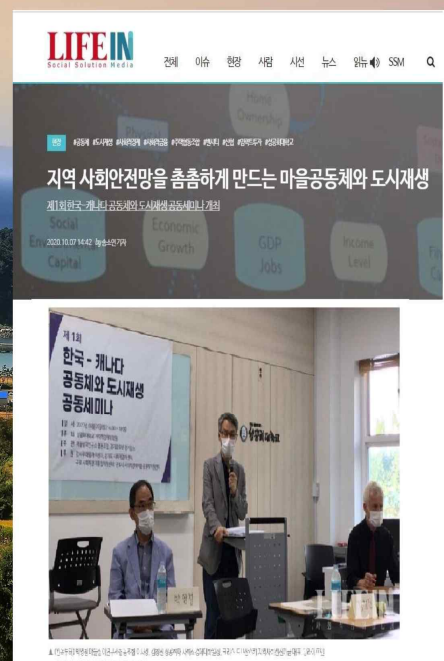
- 11개 영역, 즉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조사
- 한국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회원국 41개국 중 35위 (2020년 기준)로 하위권, ‘공동체(Community)’ 지수는 38위로 최하위권 (2023)
-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와의 밀접한 연관성

출처: 픽사베이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

촉촉하게 만드는 사회안전망

주민참여와 민관거버넌스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
포틀랜드시, 94개의 ‘마을회의소(Neighborhood Associations)’를 통해 시 정부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활동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실현



출처: 픽사베이

마을 문화의 근원은 '마을 문명'

지역 문화의 본거지는 '마을'

마을 문화의 총체는 '지역문화'

마을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 = 지역문화의 진흥과 활성화

출처: 픽사베이

의정부시 지역문화의 영역

도시 문화

마을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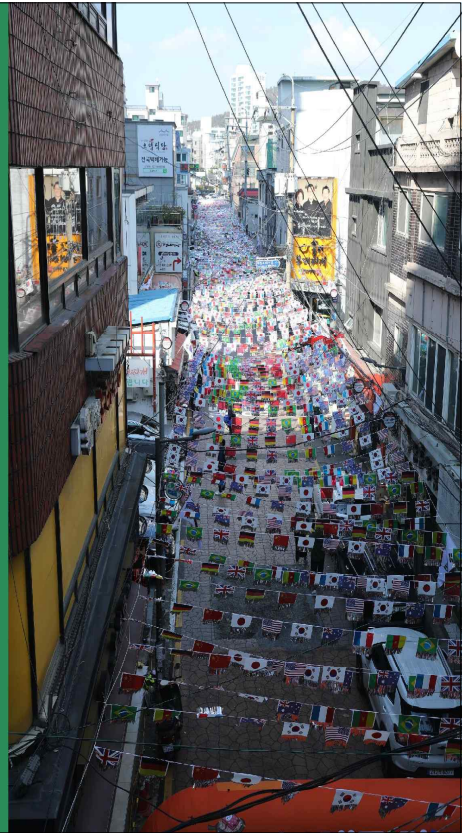
역사 유산 문화

도시 문화

의정부시 도심지역의 문화

행복로, 제일시장,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부대찌개거리

거리축제, 음식축제, 패션과 공연
문화 발달



마을 문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문화

구도심의 '도시 마을', 도시 외곽의
전통마을, 미군기지 인근 마을,
재개발지역 마을, 집단거주지 마을,
축제와 관광 마을 등





구도심의 '도시마을'

도시마을이란?
(urban village)

도시지역에서 전통적인 마을 경관이나 공동체 등 전통적인 마을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호원2동의 외미마을, 가평동 1112번길 마을, 의정부2동 신흥마을, 호원1동 다락원마을 등

도시마을 산책, 탐방 특화 마을 조성 가능



도시 외곽의 전통 마을

시의 외곽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여 논, 밭, 전통 가옥 등 전통적 마을 경관을 지닌 마을

녹양동 버들개마을, 곤제마을, 가남동 입석마을, 자일동 금곡마을, 자일동 귀락마을, 산곡동 검은돌마을, 고산동 자연마을들

전통적 마을 조직과 공동체 의례가 전승

도시인의 힐링 공간, 예술인 마을로 조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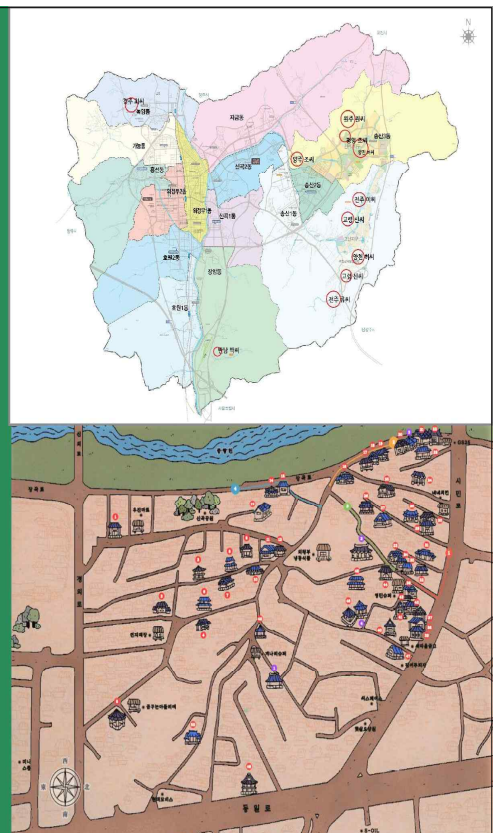
집단거주지 마을

집성촌: 장암동 반남 박씨,
녹양동 경주 최씨,
고산·산곡동 고령 신씨,
산곡동 전주 류씨 마을 등

피난촌: 의정부3동 월남촌, 연백촌

무속촌: 신곡1동 청룡마을, 의정부3동
중랑천변 100여 점집

집성촌의 묘역과 시제의 전통문화행사로
확장 가능, 점집 특화 골목 조성 가능



역사 유산 문화

역사적인 유무형의 유산과 관련된 문화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10건, 기념물 4건, 문화재자료 7건,
시 지정 향토유적 20건

이성계와 의정부 지명 설화, 회룡사와 전좌마을 유래,
다락원(누원)이 있었던 다락원마을, 의순공주와 관련된 정주당 터,
조선시대 군마 사육 농장이 있었다는 녹양동 등

의정부 지명 최초 기록: 기존 1796년(정조 20) ⇒ 1592년 임진왜란 시기 최근 발견

연산군 때(1505년) 녹양평에서 대규모의 왕실 불꽃놀이 기록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1. ‘사업’ 기반에서 ‘지역’ 기반으로

‘지역기반의 문화 정책’이란? 지역과 마을을 본거지로 하여 정책의 수혜자가
지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

마을 단위의 지원이 가장 효율적
30여개의 전체 마을을 대상 ⇒ 마을 특화 방향을 설정 ⇒ 사업 기획, 지원
기획자, 연구자 조력자로 참여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2. '도시' 와 '마을' 문화의 균형

도시문화사업



마을문화사업

<마을문화진흥에 대한 조례> 제정 제안

마을 문화에 대한 연구 사업, 마을학 연구 센터 설립, 특화 마을 조성 및 지원, 전통문화 행사 지원, 마을 총회 구성 및 지원, 마을 문화 공간 조성 등

마을 브랜드 개발과 마을의 장소성 발굴 제안

마을 전통행사와 마을 조직 활성화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3. '문화도시' 와 '인문도시' 병행

문화도시



인문도시

'지역인문학'이란? 지역의 언어학 · 문학 · 역사학 · 철학 · 종교학 등을 말하고 이는 지역학, 마을학, 도시 인문학 등

의정부학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인문학 강좌 활성화, 의정부지역 관련 논문 및 저서 출판 지원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4. 민.관.학 연계의 체계화

문화 관련 학과:

공연예술학과, 모델학과,
디자인학과, K-POP,
실용음악과, 태권도학과 등

**Shinhan
culture
power**



연기전공



모델콘텐츠전공



K-POP 전공



태권도교육융합전공



디자인학부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4. 민.관.학 연계의 체계화

인문사회학 관련 교수진: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을
중심으로 문학, 역사, 철학, 인류학, 민속학 전공 교수진 포진

의정부시 문화와 대학생 연계 수업 확장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지역과 대학>

의정부학
의정부 마을 산책
오래된 미래, 마을의 발견
지역문화와 스토리텔링
경기북부문화예술축제프로젝트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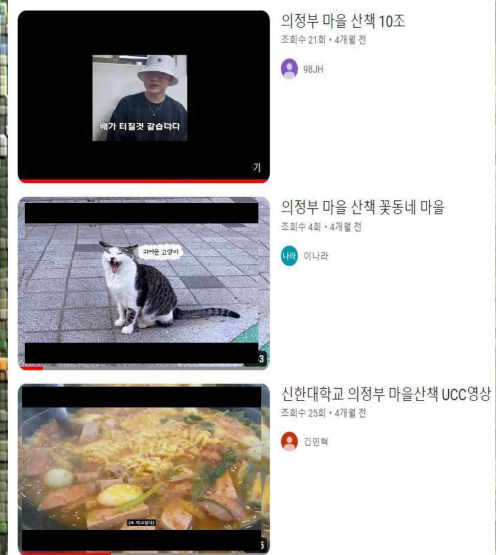
의정부시



대학

문화도시사업
문화정책기획

공동주관
연계수업



의정부시 문화가 가야할 길

전통성

전면적인 역사적 재검토를 토대로 다양한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재현함으로써 전통성을 살려 나감

의정부점(店)과 의정부장(場)의 존재, 의정부 명칭 유래와 최초
기록 시기,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과 기록, 녹양평에서
행해졌다는 왕실 불꽃놀이, 다락원과 장수원, 녹양역, 경흥대로
옛길 등

의정부시 문화가 가야 할 길

정체성

의정부시의 경계를 넘어 양주, 더 나아가 경기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적 조망

확장성

‘중심성’, ‘경기북부의 관문’
유력가문들과 집성촌에 대한 재조명

의정부시 문화가 가야 할 길

행복감

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함

“머물고 싶은 도시”

견고 싶은 마을, 힐링을 주는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
특색이 있는 마을, 예술이 있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 = ‘머물고 싶은’ 도시

“대전환의 시대, 의정부의 지역문화 어디로 갈 것인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문화로의 전환
‘마을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

도시와 마을 문화의 균형 발전
문화도시와 인문도시의 병행
민·관·학 연계의 체계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신한대학교 문화 포럼

“전환의 시대를 넘어, 의정부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하다”

<기조 발제1>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김태우(신한대학교 교수)¹⁾

발표 요지

이 발표는 지난 20세기를 휩쓸고 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충격이 다시금 지역화로 향하게 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의 지역문화와 의정부시의 문화는 어떻게 전환하여야 하며 그 전략은 무엇일지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전환의 기본 방향은 ‘지역기반’ 문화로의 전환이며 전략은 ‘마을 문화’의 진흥이다.

올해 3월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방정부에서도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의 진흥은 현재 지방문화 정책의 대체적인 추세이다. 본 발표자는 지역문화의 본거지는 ‘마을’이며 마을 문화의 총체를 ‘지역문화’로 규정한다. 이 발표에서는 마을과 마을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문화자원이나 콘텐츠로 대상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 그 자체로 설정하고 마을 문화의 공동체성, 지속성, 자족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마을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가 곧 지역문화의 진흥과 활성화임이며 이것이 향후 의정부시 문화발전의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최근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양상을 살피고 한계를 짚어 본다. 그 한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역’과 ‘마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지역’은 무엇이며 ‘마을’의 문명론적 가치와 지역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지를 밝힌다. 다음으로는 의정부시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 유형들과 그 특징을 살핀다. 특히, 그간 문화발전 전략에서 간과되었던 구도심의 ‘도시 마을(urban village)’과 도시 외곽의 ‘전통마을’에 주목하여 ‘도시 마을 산책’, ‘마을 문명’의 교육과 실천의 장소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문화발전 전략으로 ‘사업’기반에서 ‘지역’기반으로, ‘도시’와 ‘마을’ 문화의 균형 발전, ‘문화도시’와 ‘인문도시’의 병행, 민.관.학 연계의 체계화 등을 제안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마을문화 진흥 조례, 인문도시 진흥 조례, 민.관.학 원탁회의와 관내 대학 자원의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발표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민.관.학 포럼을 견인하고 의정부시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1) -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경기지역문화연구센터장.
-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 (사)한국민속학회 부회장.
- 『서울의 공동체 의례와 주도 집단』(2018),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변화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적 대응과 실천: 의정부 가평동과 고산동 빼벌마을을 중심으로」(2022) 등 다수 집필.

- 발표 목차 -

1. 대전환의 시대, 의정부의 지역문화 어디로 갈 것인가?
2. 세계적 전환의 추세 속에 문화 정책의 변화
3.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양상과 한계
4. 마을 문화의 문명론적 가치와 지역문화에서의 위치
5. 의정부시 지역문화의 영역
6.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7. 의정부시의 문화가 가야할 길

1. 대전환의 시대, 의정부의 지역문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20세기를 휩쓸고 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충격은 인류에게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가 끝날 즈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 생태학자, 미래학자 등은 일제히 지난 세기 인류 문명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의 대안으로 “다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위대한 전환”을 천명하였다.²⁾ 이들 중 제리 멘더는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가 “단일 문화이다. 세계적으로 문화, 생활 방식, 기술에 대한 도취의 수준이 획일화되고 이와 함께 **지역적 전통과 경제 체계가 해체**”되었다고 지적한다.³⁾

결국, 결국 민족과 국가가 다시 지역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은 ‘**지역적 전통과 지역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지역’은 국가 단위일 수도 있지만 더 좁은 시와도, 더 좁게는 마을 단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처럼 경제성장과 자유무역, 소비지향주의 등이 최선의 가치로 인정되었던 20세기의 문명이 저물고 다시금 ‘지역’이 세계 문명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 기류는 국내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척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세계 문명의 대전환 시대에 한국의 지역문화와 의정부시의 문화는 어떻게 전환하여야 하며 그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발표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마을 문화를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마을 문화의 근원은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에 있음을 깨달았다. 마을 문명은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살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마을들은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면서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마을 문명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외래문화의 유입, 세계화의 강제 속에서 마을 문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문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본 발표자는 **지역문화의 본거지는 ‘마을’**이며 **마을 문화의 총체를 ‘지역문화’**로 규정한다. 이 발표에서는 마을과 마을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문화자원이나 콘텐츠로 대상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 그 자체로 설정하고 마을 문화의 **공동체성과 지속성**, 그리고 **자족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마을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가 곧 지역문화의 진흥과 활성화이며 이것이 향후 의정부시 문화발전의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리 멘더.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 윤길순·김승욱 역, 『위대한 전환』, 동아일보사, 2001.

3) 위의 책, 16쪽.

2. 세계적 전환의 추세 속에 문화 정책의 변화

1) 세계적 전환의 시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급격한 산업과 경제, 문화 등 전면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인류 문명의 대격변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9~20세기 문명의 여파는 지구 환경과 생태, 경제와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학자들은 이 ‘특별한’ 문명 시기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고 이름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찍이 칼 폴라니는 이미 이러한 문명의 몰락은 19세기에 시작되었으며 20세기부터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바 있다.⁴⁾ 지금 세계는 지난 세기 문명의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 철학적, 경제적, 문명적 전환에 착수하였다. 그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생태적 전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제러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을 통해 화석 연료의 시대를 마감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인류 문명의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는 이를 달성할 핵심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다.⁵⁾

- **철학적 전환:** 경제적 지표에 의해 국가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 대신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행복지수’가 더욱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UN 산하 개발기구의 ‘인간개발지수’(HDI), UN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행복보고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BLI),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등이 대표적이다.

- **경제적 전환:** 자본주의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의 대안자본주의가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는 280만 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이 있고, 이들이 1,36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GDP의 8%를 차지하고 있다.⁶⁾

- **문명적 전환:**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역 소비를 위한 지역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지역이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공동체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자연의 한계 내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⁷⁾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난 세기 인류의 삶과 문화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명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4) 칼 폴라니 저,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5) 공지영·조일현,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115쪽.

6)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글로벌 이슈리포트 줌인(Zoom In) 6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3쪽.

7) 제리 맨더.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 윤길순·김승욱 역, 앞의 책, 482쪽.

2) 문화 정책의 변화

그간 문화와 관련된 법은 「문화재보호법」(1962), 「문화예술진흥법」(197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 등 개별 정책 중심에서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 이후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향유권 존중, ‘문화 참여 지향’으로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되고 있다.⁸⁾ 이러한 문화 정책의 변화에서 ‘문화권’에 대한 명시와 ‘지역문화진흥’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문화기본법」(4조)에서 ‘문화권’이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 문화권의 핵심은 “차별 받지 않는” 것인데 이는 문화의 지역 간 격차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문화진흥법」(1조)에는 법 제정의 목적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정책에서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에 역점을 두면서 ‘문화자치’의 개념도 등장하게 된다.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양주시, 오산시 등도 문화자치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서는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며 이때 ‘문화주체’는 “도민,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시·군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라고 정의하였다. 즉, 경기도의 문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도민들과 문화 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시책을 심의해야 한다.

이처럼 2000년 이후 20여 년 간의 국내 문화 정책의 변화는 크게 문화 정책의 중심, 역점 대상, 철학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문화 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지고 있으며 중앙의 문화 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 역시 지역문화의 활성화이다. 무엇보다도 문화 정책에 있어 문화 자치와 문화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문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역	전환 전		전환 후
문화정책의 중심	중앙정부	⇒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역점 과제	국민의 문화예술	⇒	지역문화
문화정책의 철학	계승과 창달	⇒	문화자치, 문화권

<표 3> 최근 문화정책의 변화 양상

8)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 경기도, 2020, 2쪽.

3.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양상과 한계

1) 최근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2023. 3.)

- 현 지역문화의 문제점 분석: 지역간 문화 격차, 문화의 획일화, 지방 소멸로 인한 문화 쇠퇴
- 추진 방향의 주요 키워드: 다양성, 접근성, 고유성, 균형, 지역 활력 등
- 주요 추진 사업: ‘우리동네 캐릭터’, ‘찾아가는’(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 사업, ‘지역문화 자산’(보존, 발굴, 매력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 문화 기반 시설 이전 및 확충, ‘지역 활력 패키지’ 지원 사업 등

◎ 경기도의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 현 경기도 문화의 문제점 분석: 문화 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도민의 문화 정책 참여 소외, 경기 남북부의 문화 격차 등
- 추진 방향의 주요 키워드: 문화자치, 문화주체, 공정, 문화유산(자원), 경기도사, 콘텐츠, 관광 등
- 주요 추진 사업: 문화자치 조례 제정(2021년), 문화예술교육, 공정경쟁협약, 세계유산 추진, 경기도역사편찬원 설립 추진, 문화 클러스터 조성, 생태관광 거점 조성 등

◎ 의정부시의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 현 의정부시 문화의 문제점 분석: 예산과 문화기반시설 미약(9개), 문화참여와 향유 기회 부족, 문화 격차 존재, 전담 인력 부족 등
- 추진 방향의 주요 키워드: 거버넌스, 문화인력, 시민네트워크, 거점공간, 지역특화문화, 아카이브 등
- 주요 추진 사업: 문화도시지원협의체, 예술기획학교, 문화거점공간 지원, 시민뜻대로 문화조례 제정,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등

2)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경향과 한계

◎ 지역 간 문화 격차 인식과 한계: 중앙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공통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에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남북부의 격차를, 의정부시의 경우는 신도시와 그 외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문화도시’ 사업 등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과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남북부 격차 해소의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의정부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문화 발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심과 주변 마을과의 문화 격차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

◎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예산과 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문화자치’와 ‘문화권’에 대한 정책과 한계:** 경기도에서는 문화자치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정책 축제 등을 실시하였다(2020년, 2021년). 의정부시에서는 문화도시지원협의체와 시민네트워크 등을 결성하였고 문화자치 정책 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자치의 본질은 “문화를 창조, 문화활동에 참여, 향유하는 모든 주체”인 ‘문화주체’가 문화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와 네트워크, 정책 마켓 등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의정부시 전체 문화 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혹은 소외되고 있는 주체들은 없는지 점검해 볼 문제이다.

◎ **‘문화주체’ 양성과 한계:** 경기도에서는 문화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시민예술학교와 청소년, 노년층 예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문화예술기획학교, 무한상상 시민예술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권역동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주체는 모든 ‘문화’(용어 정의 참조)의 주체를 포함하지만 현재 사업들은 대체로 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로 문화인력, 즉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와 문화주체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주체에 대한 사업은 주로 **공모와 교육**이 위주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모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연령과 계층, 지역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 문화주체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문화 발굴, 활용 사업과 한계:**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생활사 기록가 양성, 지역문화콘텐츠 지원, 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지역문화유산 체험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도시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조사 전문인력 양성, 지역축제와 유적 활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에는 도심지나 관광지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며 ‘지역문화’에는 예술이나 콘텐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은 해당 시군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지역문화는 총체적 문화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지역문화 발전 전략의 주목할 만한 경향

◎ 지역문화의 적극적 발굴과 기록

지방정부와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조사하고 발굴, 기록하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10여 년 전부터는 마을지 발간 작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마을지 발간 사업은 시군지 발간의 공백 기간에 진행되어 지역문화를 촘촘하게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의정부시에서도 올해부터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권역별 마을지 발간 사업이 시작되었다. 향후 4년 동안 4개 권역 14개 동의 문화를 전문가와 시민조사단이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⁹⁾ 그런데 이러한 지역 기록화 사업은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용역으로 진행되는 경

9)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b21jNNpFdhtDU1GVsqn6vvhkg1SuyxNUNgZk5edYjuan8NEAgnCEhqt7NgB97swl&id=100001785388546&comment_id=122203368

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게 된 데에는 해당 지역에 지역문화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집필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화만큼 중요한 것은 기록화 과정에서 구축되는 지역민들과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향후 지역문화 사업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 외부 전문가들의 용역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이 네트워크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문화 사업을 위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내 대학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 인문학(인문도시)에 대한 관심 확산

최근 지역문화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경향 중에 하나가 지역학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다. 10여 년 전부터 수원학, 용인학, 이천학, 의정부학 등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생겨났다. 이처럼 시군 단위의 지역문화에 천착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앞에서 언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즉 마을지 발간 사업의 경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에 중앙정부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940호 '16. 2. 3. 공포)」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도 인문학 진흥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2023년 4월 현재까지 36곳의 지자체에서 인문학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의정부시도 올해 3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인문학 진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의 인문학 진흥 법률의 영향도 있으나 기존 문화 정책에서 인문학이 제외되었던 이유가 크다고 판단된다. 인문학은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을 포괄하는 학문으로서 문화를 설명하는 데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문화 정책의 범위와 대상은 주로 문화예술에 치중되어 있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인문학 진흥 조례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은 인문학 도시 혹은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2023년 4월 현재 10개의 시군구에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이 중에 부산 영도구와 경기도 수원시, 경북 칠곡군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이들 지역은 문화도시와 인문도시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20호	2014. 11. 13.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556호	2023. 2. 8.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30호	2013. 3. 11.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44호	2021. 12. 16.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1098호	2019. 8. 28.
6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85호	2022. 8. 16.
7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45호	2022. 2. 11.
8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3213호	2020. 7. 10.
9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4209호	2021. 9. 28.
10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제2290호	2015. 4. 1.

<표 4> 인문(학)도시 조례 제정 현황(빨간색은 문화도시 선정 도시)

◎ 마을 문화의 가치 인식

최근 선정된 문화도시 중에 도시 문화가 아닌 마을 문화에 집중하면서 우수문화도시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 제주 서귀포시 문화도시 ‘노지문화’ 사업 사례이다, 여기서 ‘노지’란 “서귀포의 자연, 즉 한라산과 오름·숲과 들·해안과 바다”를 말하며 ‘노지문화’는 “서귀포 사람들이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을 활용하며 이룩한 삶의 문화”¹⁰⁾이며 “105개 마을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중게 가꾸어온 소박한 공동체 문화”를 말한다.¹¹⁾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서귀포시의 ‘노지문화’ 사업을 높이 평가하여 ‘2023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하였다.

서귀포시의 ‘노지문화’ 사례는 도시문화와 공모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문화도시 사업들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지역 마을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전체 마을 자체가 문화도시인 셈이다. 이처럼 전통마을들도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정부시 역시 도심 위주의 문화 정책에서 전체 마을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한 문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4. 마을 문화의 문명론적 가치와 지역문화에서의 위치

1) 마을 문화에 대한 문명론적 가치 인식

지역의 최소 단위는 마을이다. 이러한 마을은 도시든 농촌이든 수백 년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한다. 지역문화를 논할 때 ‘마을’이 점차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마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마을이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자치적 체계에 의해 생업, 의례, 노동, 상호부조, 여가, 생태 등이 공유 혹은 운영되는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마을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간 마을 문화를 축적해 오면서 지금의 마을 문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마을 문화는 실로 방대하고 심오하며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이룩되어 왔기에 ‘문명’의 하나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문명은 “크게 씌어진 문화이다”¹²⁾라고 한 사무엘 헌팅턴의 말처럼 문명은 포괄적이며 가장 광범위한 문화적 실체의 하나이다.¹³⁾ 마을의 문화 역시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문화적 실체이고 인류가 모여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어쩌면 가장 오래 지속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문화를 처음으로 문명의 하나로 인식했던 이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1869~1948)이다. 그는 이미 100여 년 전에 ‘마을 스와라지(Village Swaraj)’, 즉 마을 자치를 통해 외부적인 통제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립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¹⁴⁾ 이를 위해 ‘도시 문명’이 아닌 ‘마을 문명(village civilization)’을 택해야 하며 각각의 마을들은 자족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¹⁵⁾ 이처럼 간디는 ‘도시 문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마을 문명’을 인식하였고 마을 문명을 도시 문명과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도시 문명이나 서구 문명 등 ‘문명’이란 용어가 ‘미개’와의 대립되는 개념¹⁶⁾으로 인식되었던 당시에 간디는 ‘마을 문명’을 이들 문

10)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편,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문화 서귀포』,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21, 3쪽.

11)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편, 『문화도시 서귀포 단어집』, 2쪽.

12)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47쪽.

13) 위의 책, 49쪽.

14) 마하트마 간디 저, 김태언 역,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녹색평론사, 2006, 29쪽.

15) 위의 책, 46~47쪽.

16) 정수일, 『문명담론과 문명교류』, 살림, 2009, 43쪽.

명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력과 선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발견한 라다크 마을이 지닌 문명적 측면들, 즉 자급자족의 삶과 땅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건강한 노년이 있는 삶, 공존과 관용, 상호부조, 공동 노동과 축산, 의례 등¹⁷⁾은 마을 문명의 실재를 깨닫게 한다. 또한, 그녀는 라다크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 이는 라다크와 같은 전통 마을의 문명이 미래 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한 것이다. 발표자는 간디를 통해 ‘마을 문명’에 대한 각성을, 호지 여사를 통해 마을 문명의 실체를 목격하고 마을 문화의 문명론적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마을 문화는 단순히 마을에 전승되는 문화 현상에 그치지 않고 마을을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마을 문명의 요체이다.

이러한 마을 문명의 가치는 현대 문명의 한계와 미래 문명의 대안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문명의 몰락과 20세기 대전환¹⁹⁾과 세계화의 충격이 가져온 ‘지역화’로의 회귀²⁰⁾는 결국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지역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단위가 ‘마을’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마을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²¹⁾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는 세계적으로 행복지수에 관심이 커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 즉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 행복지수와 밀접한 영역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지수이다. 한국은 ‘삶의 만족도’는 회원국 41개국 중 35위(2020년 기준)로 하위권이다. 또한, ‘공동체(Community)’ 지수는 38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OECD Better Life Index, 2023. 03. 12). 그런데 공동체 지수와 삶의 만족도 지수를 비교해 보면, 공동체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 지수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동체가 각 개인에게 무조건적인 정서적 지지의 그물을 제공하면서 긴밀한 사회적 유대와 상호의존을 권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호지의 주장²²⁾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마을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는 오늘날 재조명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을 복원 프로젝트가 벌어지고 있다.

2) 마을 문화와 지역문화

마을 문화의 본질적 특성은 공동체성과 지속성, 그리고 자족성 등이 있다. 마을 문화는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전승된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는 한 마을 문화는 대체로 지속된다. 단,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지역에 변화가 생기면 마을 문화 역시 영향을 받아 변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한, 마을 문화는 향유자이며 수행자인 주민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는 자족성을 지닌다. 이러한 마을 문화의 특성은 문화주체인 지역민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17)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김종철·김태언 역,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녹색평론사, 2001.

18) 위의 책, 프롤로그, 25쪽.

19) 칼 폴라니 저,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20) 제리 맨더,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 윤길순·김승욱 역, 『위대한 전환』, 동아일보사, 2001.

21) “지역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제1회 한국-캐나다 공동체와 도시재생 공동세미나”,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323>, 2020. 10. 07.

22)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앞의 책, 2001, 111쪽.

한편, 각 마을마다의 특수한 문화와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문화가 있다. 특정 지역에서 각 마을마다의 특수한 문화들이 특징적인 경향성을 띠게 되면 다른 지역문화와 차별화되면서 **특색있고 고유한 지역문화**가 된다. 만약 마을 문화들에서 특징적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마을 문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지역문화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마을 문화의 총체가 지역문화**가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제1장 제2조)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일반적인 문화 개념과 구별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띠고 있는 문화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역’은 무엇인가? 지역에 대해서는 학문 영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문화정책에 있어서 대체로 행정구역이 기준이 된다. 즉, 의정부지역은 의정부시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전 영역을 말한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지역문화는 도심지만의 문화도 아니며 미군기지만의 문화도 아니다. 도시 외곽의 전통마을 문화도 의정부지역의 문화이며 도심 속 ‘도시 마을’ 문화도 의정부지역의 문화이다. 좀더 범박하게 말하면 의정부시에 소재한 30여개의 마을 문화가 결국 의정부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 문화만으로 의정부 지역문화를 규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등은 마을과 무관하게 극장이나 전시실, 공장 등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등도 마을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보다 지속적이고 특색있는 지역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을 마을과 함께 하면 문화예술마을이나 문화산업마을이 탄생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현장이 마을이 될 때 주민들은 비로소 문화주체가 될 수 있으며 문화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5. 의정부시 지역문화의 영역

문화는 넓게 보면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²³⁾ 좁게 보면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문화기본법」 제3조). 그렇다면 지역문화라고 하면 이러한 구분 앞에 ‘지역’을 붙여서 ‘지역문화예술, 지역생활 양식, ...’ 식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역문화진흥법」(제1장 제2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영역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문화의 수행 양태에 따른 구분에 가깝다. 즉, 잔존 형태로 남은 문화(문화유산), 창작과 연행의 문화(문화예술), 일상적으로 행하는 문화(생활문화), 이윤 창출을 위해 활용하는 문화(문화산업)라는 식이다. 이러한 구분은 문화 행정을 집행할 때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지원 방식을 정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정책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구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학에서는 도시 내부 구조를 도심, 점이지대, 노동자 주택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²⁴⁾ 보다 평이하게는 도심, 부도심, 주변지역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정부지역의 경우는 도심과 구도심, 신도시, 미군기지, 개발제한구역 등이 복잡하게 얹혀 있어 기존의 도시 구조를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시성을

23) 「문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771>.

24)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2002, 38쪽.

떠는 도시 문화와 공동체성을 떠는 마을 문화, 역사유적으로 형성된 역사유적 문화로 구분하고 그 특성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도시 문화

도시 문화는 의정부시의 도심지역, 즉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지역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때의 도시 문화는 빌딩과 상점, 음식점과 카페, 주점, 극장, 백화점 등이 들어서 있는 거리와 공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특색있는 도심지로는 행복로, 제일시장,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부대찌개 거리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거리 축제나 음식 축제, 패션과 공연 등의 문화가 발달했다.

2) 마을 문화

마을 문화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마을의 존재 형태도 다양하여 구도심의 ‘도시 마을’, 도시 외곽의 전통마을, 미군기지 인근 마을, 재개발지역 마을, 집단거주지 마을, 축제와 관광 마을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구도심의 ‘도시 마을’: ‘도시 마을(urban village)’이란 도시지역에서 전통적인 마을 경관이나 공동체 등 전통적인 마을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주로 도심 가운데 섬처럼 남아 있다. 오래 전부터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 피난촌, 하천 부지에 형성된 마을 등이 있다. 호원2동의 외미마을, 가능동 1112번길 마을, 의정부2동 신흥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외미마을은 회룡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마을회관 등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으며 아기가기한 골목이 남아 있어 전형적인 도시 마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마을들은 접근성이 뛰어나 도시 마을 산책이나 탐방 등의 특화 마을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도시 외곽의 전통 마을: 전통마을들은 대체로 시의 외곽에 있으며 인접 시와의 경계와 가깝다. 논과 밭, 농업 위주의 전통적 마을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대체로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이 마을들의 대다수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마을 조직과 공동체 의례가 유지되고 있다. 녹양동 버들개마을, 낙양동 곤제마을, 가능동 입석마을, 자일동 금곡마을, 자일동 귀락마을, 산곡동 검은돌마을, 고산동 자연마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마을은 도시인들에게 힐링 장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마을에 예술인들을 유치하여 도자기, 서각, 목공 등의 예술마을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미군기지 인근 마을: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져 예전 미군기지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가능동과 뺨별마을은 현재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마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²⁵⁾ 하지만 미군기지 문화라는 제한성으로 인해 지역문화로의 확장성을 시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재개발지역 마을: 이 지역들은 재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있거나 무산된 지역으로 문화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단독주택과 빌라 건물이 많으며 골목들이 많이 남아 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반목과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도 존재하고 있다. 비교적 다른

25) 김태우,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변화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적 대응과 실천: 의정부 가능동과 고산동 뺨별마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지역에 비해 주택이나 상가 임대료가 낮아 고령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공장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신곡1동 청룡마을, 의정부3동 등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이 무산된 마을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일환으로 벽화 그리기 등 문화 활동들이 전개되기도 한다. 특히, 청룡마을은 중랑천변에 80여 점집이 몰려 있어 전국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다. 또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여 특색있는 골목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지역 마을들은 현재도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화된 문화 마을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집단거주지 마을:** 의정부의 집단거주지 마을은 집성촌과 피난촌, 무속촌 등이 있다. 집성촌으로는 장암동 반남 박씨(潘南朴氏), 녹양동 경주 최씨(慶州崔氏), 고산·산곡동 고령 신씨(高靈申氏), 산곡동 전주 류씨(全州柳氏) 등이 있다. 피난촌으로는 의정부3동 월남촌과 연백촌이 있으며 무속촌으로는 신곡1동 청룡마을, 의정부3동 중랑천변 등이 있다. 특히, 의정부지역의 집성촌은 현재 조사된 마을만 10여 곳에 이른다. 장암동과 고산동, 산곡동 등에는 각각 박세당, 신숙주, 류세구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해다마 시제를 성대하게 지내고 있다. 개별 가문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제의이므로 지역의 전통문화행사로 확장시킬 여지도 있다. 의정부지역에 집성촌과 묘역 등이 집중되었던 점도 중요한 지역적 특징이다. 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축제와 관광 마을:** 지역축제나 관광지로 특화된 마을을 의미한다. 의정부 마을 중에 축제 혹은 관광으로 특화된 마을은 드문 편이다. 의정부부대찌개거리나 박세당 유적지가 있는 장암동 상하촌마을 등이 있다. 축제와 관광 마을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아직 특화되지 못했고 인프라나 콘텐츠도 부족한 실정이다. 축제와 관광 마을을 2~3곳이라도 지정하여 특화 마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역사 유산 문화

역사 유산 문화란 역사적인 유무형의 유산과 관련된 문화를 의미한다.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역사 유산으로 경기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10건, 기념물이 4건, 문화재자료가 7건이 있으며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이 20건이 있다. 이외에도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 등도 역사 유산 문화로 볼 수 있다. 이성계와 의정부 지명 설화, 회룡사와 전좌마을 유래, 다락원(누원)이 있었던 다락원마을, 의순공주와 관련된 정주당 터, 조선시대 군마 사육 농장이 있었다는 녹양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역사 유산 문화는 의정부지역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실증 조사는 무척 미비한 실정이다. 의정부라는 지명이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기존에는 1796년(정조 20)으로 알려졌다가 그보다 200여년 앞선 1592년 임진왜란 시기에 등장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려졌다.²⁶⁾ 또한, 녹양평에서 연산군 때(1505년) 대규모의 불꽃놀이를 했다는 사실²⁷⁾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태조

26) 유호명, 『의정부를 담다』, 의정부문화원, 2022, 162쪽. “내가 왜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녹양역(綠楊驛) 고을에 큰 진영이 있고 애당(艾堂) 등의 고을 곳곳도 모두 적진입니다. 오늘 들으니 관군과 의정부(議政府)의 장내(場內)에서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데 - 관군은 이시언(李時言)의 부대라고 한다. - 공의 일행께서는 날아서 가시려는 것입니까? 余問賊今在何處. 答曰. 綠楊驛村是大陣. 艾堂等村. 處處皆陣. 今日聞與官軍戰於議政府場內. 官軍. 是李時言軍云. 公一行. 欲飛過乎.”, 이정규,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 『월사집』, 月沙先生別集卷之, 雜著.

이성계와 관련된 일화와 임진왜란 당시에 존재했던 의정부장(議政府場), 녹양평의 대규모 왕실의 불꽃놀이 등은 향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6.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전환과 비전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문화의 발전 전략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사업’ 기반에서 ‘지역’ 기반으로

현재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은 주로 특정 단체나 모임, 교육이나 축제, 행사 등을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반의 문화 정책’이란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민들이 직접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다. 의정부에 소재한 30여개의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특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따른 사업들을 기획,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자와 연구자는 조력자로 참여한다.

이처럼 지역지반의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령, 기존의 ‘문화거점공간’ 사업은 ‘거점마을 조성’ 사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네트워크’도 ‘마을네트워크’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 단위의 축제 이외에 마을 축제도 기획,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최근 생활권 중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문화연속성이 단절되는 강사 수업 중심에서 선후배 기수들이 협업하면서 자기를 계발하는 마을동아리 중심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하며 일상 문화공간 연계와 기반 강화, 마을 문화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²⁸⁾

이와 같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마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주어진다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는 마을 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의정부 전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문화 정책 기획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도시’와 ‘마을’ 문화의 균형

앞서 제안한 지역기반 문화 정책이 마을만을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 즉, 기존에 시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들, 도시 문화와 관련된 것들과 함께 마을 문화에 대한 정책이 균형을 이루며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을문화진흥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마을 문화에 대한 연구 사업과 마을학 연구 센터 설립, 특화 마을 조성과 지원, 전통문화행사 지원, 마을 총회 구성 및 지원, 마을 문화 공간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마을 브랜드 개발과 마을의 장소성 발굴을 제안한

27) "내일 밤에 전곳(箭串)·녹양(綠楊) 등지에서 성산화(星散火)를 놓으라.",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1505) 1월 2일. 여기서 성산화(星散火)란 화포(火砲) 따위로 쏘아 화약을 벌이 퍼지듯이 불꽃이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 지금의 불꽃놀이 불과 같은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id/wja_11101002_003.

28) "생활권 중심 문화공간 조성...상향식 문화자치 체계 구축돼야", 『뉴제주일보』, 2023.04.05.,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386>.

다. 또한, **마을 전통행사**와 **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 10여 개의 마을에서 공동체 의례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런데 이들 행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을에서 공동체 의례를 행하거나 총회 등을 열 경우 지원금 혹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동제명칭	신격	당의 형태와 위치	제일	제의형식	제물
산곡동 흑석마을	산신제	산신 (암호령이)	뒷산 능선의 공터	9월 초 택일하여 동짓달 안에 지냄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머리, 백설기, 과일, 메, 당, 조라술
호원동 장수원	산지성 (산신제)	산신(할아버지, 할머니)	뒷산 중턱의 공터	9월 초순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내장, 우족, 메, 당, 과일, 떡시루, 조라술
가능동 입석마을	산지성	산신	염산 7부 능선의 노송	10월 초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돼지머리, 복어, 쌀시루떡, 과일, 술
지일동 귀락마을	산신제	산신	뒷산 능선의 노구메골	10월 초하루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돼지20년 전까지는 소머리와 우족을 줄렸음, 백설기, 과일, 메, 조라술
인락동 본인락마을	산신제	산신	마을 앞 부용산 중턱 참나무	10월 초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 과일, 술, 포, 시루떡
인락동 삼귀마을	산신제	산신	뒷산 중턱 나무	10월 초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백설기, 소머리, 과일, 조라술
용현동 어룡마을	산신제	산신	효자동 마루턱에 있는 노송	10월 초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머리, 과일, 백설기, 메, 술
고산동 깃바위마을	산제	산신	마을 서쪽 산 중턱에 있는 당집	10월 초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머리, 복어, 닭, 실과, 메, 술, 공양미
장암동 동막골	산신제	산신(여산신)	수락산 중턱에 있는 노송	2월 초하루 10월 초하루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과일, 떡(고기)는 올리지 않음)
산곡동 새말	산제사	산신	새말 뒷산 효자봉 중턱에 있는 공터	10월 초하루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머리, 조라술 외 기타 제수음식
녹양동 버들개마을	동네제사	산신	산 중턱 소나무	10월 초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머리, 우족, 시루떡, 쇠고기 생적, 두부, 메, 포, 과일, 떡, 조라술, 두부적, 떡국탕·골탕, 산자, 간장 한盅지
호원동 다락원	산제사	산신	마을 뒷산 바위 아래	8월 초하루	유교식 제례와 고사 형식 혼합	소머리, 조라술 외 기타 제수음식

<그림 52> 의정부 마을신앙 현황(『의정부시사』 4, 2014: 183, 다락원마을은 필자 추가)

3) ‘문화도시’와 ‘인문도시’의 병행

지속적인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정책과 실천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지역 인문학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 인문학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10곳의 지자체에서는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의정부시 역시 2023년 3월에 인문학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무척 고무적이다. 기왕 인문학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때의 인문학은 보편적 인문학보다는 지역 인문학이 유용할 것이다. 지역 인문학이란 지역의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을 말하고 이는 지역학, 마을학, 도시 인문학 등으로 수렴될 수 있다.

의정부시의 인문학 진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정부학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인문학 강좌 활성화, 의정부지역 관련 논문 및 저서 출판 등의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 역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의정부 영역을 넘어 양주와 인근 경기 북부지역까지 검토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는 의정부 소재 마을들의 성립과 유력 가문들의 이주 과정을 밝히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처럼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이후 의정부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의정부시가 ‘문화도시’와 함께 ‘인문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민.관.학 연계의 체계화

마지막으로 의정부 문화 정책의 입안과 사업 시행에 있어서 민.관.학 연계를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문화 영역에 있어서 민.관의 연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내 대학과의 연계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 관내에는 신한대학교, 경민대학교, 을지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 중 신한대학교와 경민대학교에는 공연예술학과, 모델학과, 디자인학과, K-POP, 실용음악과, 태권도학과 등 문화 관련 학과도 다수 존재한다.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신한대학교의 경우 리나시타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철학, 역사, 문학, 민속학 전공 교수진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의정부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자문이나 강연 등이 전부이며 정례적이거나 체계적인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관내 대학 교수진과 연구자들을 포괄하여 자유로운 원탁회의나 네트워크를 조직한다면 실질적인 민.관.학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관.학 연계는 교수나 연구자 외에 관내 대학생들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한대의 경우 최근 몇 년전부터 교양대학 강의 영역에 <지역과 대학> 영역을 신설하고 지역과 연계한 강의를 적극 개설하고 있다. 의정부학, 의정부 마을 산책, 오래된 미래 마을의 발견, 지역문화와 스토리텔링, 경기북부문화예술축제프로젝트기획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강의는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을 탐방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정부 문화 관련 기관이나 사업과는 실제적인 연계가 되고 있지는 않다. 추후에 문화도시 사업이나 문화 정책을 시행할 때 대학 연계 수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관내 대학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은 이후 의정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는 대학과 의정부시의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7. 의정부시의 문화가 가야할 길

이상으로 세계적인 문명의 대전환과 국가적인 문화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의정부시의 문화 발전 전략에 대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의 문화 정책, 도시와 마을 문화의 균형 발전, 문화도시와 인문도시의 병행, 민.관.학 연계의 체계화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의정부시의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의정부시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적인 역사적 재검토를 토대로 다양한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재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정부점(店)과 의정부장(場)의 존재, 의정부 명칭 유래와 최초 기록 시기,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과 기록, 녹양평에서 행해졌다는 왕실 불꽃놀이, 다락원과 장수원, 녹양역, 경흥대로 옛길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증이 된다면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전통 문화 행사나 특화 마을 조성을 통해 의정부의 전통성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1963년 이전까지 양주에 속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의 경계를 넘어 양주, 더 나아가 경기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적 조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의정부의 정체성을 ‘중심성’²⁹⁾ 혹은 ‘경기북

29) 의정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 이정훈은 중심성 회복, 경기북부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 통일과 평화의 도시 이미지 확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정훈, 「의정부시의 도시정체성 확립과 전략 과제」, 『의정부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편, 2007, 76쪽.

부의 관문'으로 설정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역에 존재했던 유력 가문들과 집성촌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³⁰⁾ 10여개의 유력 성씨들이 의정부지역에 세거지를 마련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의정부지역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문화는 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의정부 문화도시의 캐치 프레이즈가 “머물고 싶은 도시”이다. 잠시 스쳐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정주하고 싶은 도시의 매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발표자는 그 답을 ‘마을’에서 찾고자 한다. 걷고 싶은 마을, 힐링을 주는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 특색이 있는 마을, 예술이 있는 마을은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이고 궁극적으로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발표자가 맨 처음 제기했던 물음이었던 “대전환의 시대, 의정부 지역문화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용어 정의]

○ ‘문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문화기본법」 제3조)

○ ‘문화예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제2조)

○ ‘지역문화’: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제2조)

○ ‘문화도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제2조)

○ ‘인문(학)도시’

-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이상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인문학도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구현 도시
2.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

30) 의정부문화원에서는 의정부의 12가문에 대해 조사하여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1~4)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면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의정부지역의 유력 가문들과 마을 형성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4.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5. 구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2조)

[참고문헌]

-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 경기도, 2020.
- 『연산군일기』
- 「임진피병록(壬辰避兵錄)」, 『월사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공지영·조일현,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 김태우,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변화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적 대응과 실천: 의정부 가능동과 고산동 빼벌마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96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 마하트마 간디 저, 김태언 역,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녹색평론사, 2006.
- 새뮤얼 헌팅턴 저,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편,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露地문화 서귀포』,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21.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편, 『문화도시 서귀포 단어집』.
- 유호명, 『의정부를 담다』, 의정부문화원, 2022.
- 의정부문화원 편,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1』, 의정부문화원, 2020.
- 의정부문화원 편,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2』, 의정부문화원, 2020.
- 의정부문화원 편,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3』, 의정부문화원, 2021.
- 의정부문화원 편,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4』, 의정부문화원, 2021.
- 이정훈, 「의정부시의 도시정체성 확립과 전략 과제」, 『의정부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편, 2007.
- 정수일, 『문명담론과 문명교류』, 살림, 2009.
- 제리 맨더.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 윤길순·김승욱 역, 『위대한 전환』, 동아일보사, 2001.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2002.
- 칼 폴라니 저,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김종철·김태언 역,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녹색평론사, 2001.
-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글로벌 이슈리포트 줌인(Zoom In) 6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 “지역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제1회 한국-캐나다 공동체와 도시재생 공동세미나”, 『라이프인』,
-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323>, 2020. 10. 07.

“문화도시, 지역을 밝히는 로컬콘텐츠 발전소”. 『문화체육관광부』,
<http://behind-story-7.tistory.com/55>, 2023. 2. 24.

“생활권 중심 문화공간 조성…상향식 문화자치 체계 구축돼야”, 『뉴제주일보』, 2023.04.05.,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386>.

“연재 ‘대전환’의 시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ERIES/209/home01.html>.

발제2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예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예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 2022년 의정부-경기북부예술인 공론장을 마치고

염신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2022 의정부 경기북부 예술인 공론장의 배경

- 지역문화예술정책 성장 : 문화분권을 넘어 문화 자치로, 지역문화재단의 비약적 증가
- 엄청난 양적 성장, But 행정의 일방적 주도·공급자 중심 정책의 한계
- 예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예술지원정책·사업이 온당한가?
- 지역(특히 기초)에서 예술지원정책·사업에서의 “**당사자성**” 이 왜 필요한가?
- 예술인 당사자 포지션에서의 예술지원정책·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지속가능한 예술공론장 형성을 통한 “**예술인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2022 의정부 경기북부 예술인 공론장의 주요 방향

- 문화도시 의정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예술인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
- 문화재단 전환 이후 문화예술지원 전문조직으로서 요구되는 예술인거버넌스 형성
- 문화도시 의정부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의 발견
-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예술 씬(Scene)의 형성과 활성화
- 예술인 당사자성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필요(Needs)기반한 지원사업의 발굴
- 지역 안에서 예술인 스킨쉽 강화와 이를 통한 협업가능성 발굴

2022의정부 경기북부 공론장의 기본설계(1)

의제도출 공론장 (7~9월초)	공유포럼 (9월말)	심화단계 (10월)	종합포럼 (11월말)
- 장르별 공론장(6회) - 세션별 공론장(4회)	- 공론장 운영경과 발표 - 예술현장 적용방안	- 지원(사업)모델 제안 - 워킹그룹 지원	- 사업제안서 발표 - 종합토론

장르	일시
연극	22.8.11 14:00
무용	22.8.12 14:00
음악	22.8.16 14:00
문학	22.8.18 14:00
시각·조형	22.8.22 14:00
다원	22.8.23 14:00

활동형태	일시
단체 소속	22.8.29 14:00
단체 미소속	22.8.30 14:00
신진·청년	22.9.1 14:00
신규 유입	22.9.2 14:00

2022의정부 경기북부 공론장의 기본설계(2)

심화단계(워킹그룹 지원)

○ 일 정 : 10~12월

○ 추진배경

- 공론장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기반으로 지역예술가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도록 독려
- 이를 통해 예술가 지원방식 다양화를 모색하여 관에서 제안하는 지원(사업)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 세부내용

-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토론자들을 모아 최대 4~5팀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예술가들이 직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사업) 모델을 제안하도록 함
- 선택한 의제별 담당 멘토 1인과 함께 2~3번의 워크숍을 통하여 의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예술인공론장과 심화단계 사이에 공유포럼을 진행하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함

※ 심화단계 이후 종합포럼으로 예술인공론장의 최종적 성과물을 공유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1 _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 늘어나고 있는 예술인들, 그러나...

- 예술인들의 증가 : 서울에서 활동하던 많은 예술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로 서울 북부지역을 경유해 의정부 등 경기북부로 넘어오고 있음
- 배우, 연주자, 무용가, 연출, 기획 등 다양한 인적자원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지역예술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족한 인프라

- 도시규모에 비해 전문적 공연을 위한 공연장의 부족(민간포함), 예술의전당의 높은 문턱
- 지역 특성, 예술가의 활동 단계(신진, 중견) 등을 고려한 다양한 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 절대부족
- 정보와 네트워크의 부재로 협업과 이를 통한 지역정체성이 담긴 특성화된 예술기획 부족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1 _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 필요

- 전문예술인들에 대해서 창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의 지원 필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민들의 예술적 역량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생활예술은 전문예술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일상에서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특성화된 지원 필요

• 특성화된 예술지원의 필요성

- 완성품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창작사전단계(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지원 필요
- 예술인들의 개별적 창작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협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창작 지원 심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1 _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주체화된 프로그램, 축제의 필요성

- 지역의 연극인들이 직접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연축제가 필요(의정부 음악극 축제 등에 하루 정도라도 지역연극인, 음악인들을 위한 스테이지가 필요함)
- 아트캠프 부근, 구도심(시장) 등 다양한 의정부의 장소성을 활용한 페스티벌 가능성
- 지역 정체성을 담은 작품제작에 대한 지원 필요

• 홍보, 공간, 공론장

- 의정부에서의 예술활동에 대한 공공(문화재단)에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
- 예술의 전당 뿐만 아니라 민간예술공간(소극장 등) 활성화를 위한 전략 필요
- 예술가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예술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소통창구 필요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1 _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 예술인 복지

- 경기도에서 시도하려는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엇갈린 의견
 - ✓ 부정적 의견 : 명분 없는 예술인 지원일 수 있음, 금액 자체가 유명무실
 - ✓ 긍정적 의견 : 그 자체가 예술인들에게 자긍심과 지속 활동을 위한 원동력
- 아티스트피플 공공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재능기부를 당연히 하는 문화부터 지양해야 함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2 _ 문학, 시각, 다원

• 문화재단 지원사업에서 전문성 문제

- 공연장(예술의전당)에서 시작한 문화재단의 특성상 여전히 시각이나 문학 등 개인 작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전문성이 부족
- 미술도서관이나 예술의전당 갤러리 등 시설이 존재하지만 지역 예술가나 시민들의 규모에 비해 프로그램과 기획력이 부족

• 부족한 인프라

- 작품을 발표할 공간 자체가 부족, 전문공간이 아니더라도 공공공간, 민간공간의 공간에서라도 전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 필요
- 꾸준한 기획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부족함
- 문학의 경우 독립서점과 같은 다양한 거점공간에서 “북토크”, “작가와와의 만남” 같은 프로그램 필요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2 _ 문학, 시각, 다원

• 지역에서의 전문 기획 인력, 플랫폼의 필요성(시각)

- 지역 시각예술인(미술, 조형 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술계 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전문기획자 필요
- 함께 전시를 만들고자 해도 지역 미술계에 대한 정보가 모이지 않고 있어 협업이나 콜라보가 어려우며 따라서 정보와 소통의 플랫폼이 필요

• 전시, 마케팅을 위한 기본 인프라 필요(시각)

- 작품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현재는 그 전제가 부재함
- 공공이 지역의 작품들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노출시켜주는 공신력 있는 공공갤러리 정책 등이 필요
- 오프라인에서의 일정한 노출을 전제로 온라인 갤러리와 같은 형태로 지역 작품에 대한 마켓 필요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2 _ 문학, 시각, 다원

• 문학 정보의 부재

- 문학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함
- 문학인으로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작가가 참여하거나 작가를 지망하는 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음

• 소통과 인큐베이팅의 플랫폼이 필요

- 작가를 만나거나 문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연결될 수 있는 독립서점(작은서점) 활용 프로그램 필요
- 온라인을 통해 문학 지망생들과 지역문학인들의 연결고리가 필요
- 지역에 대한 글쓰기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 공간(매체)의 필요성
- 저작권 제도 등 전업적 문학활동을 위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2 _ 문학, 시각, 다원

• 지역예술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시각, 다원)

- 의정부를 축으로 하는 경기북부 예술인들이 작업과 활동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의 필요성
- 예술인들이 중장기적 지역예술의 담론을 함께 나누고 이에 대하여 주제나 정체성으로 발전시켜 작업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

•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문화적 특성의 탐구, 미학적 성장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 탐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역에 예술가들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비평적 기회의 필요(비평가 매칭)
- 의정부의 예술을 외부에 알리고, 또한 타 지역의 예술프로젝트를 의정부에서도 알 수 있는 쌍방향적 정보 제공의 필요
- 예술과 타 영역(산업, 사회경제, 도시재생 등)과의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획 필요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3 _ 활동형태

• 지역예술인, 예술단체와 공공지원기구(재단)와의 스킨십 강화

- 지역의 예술인들이 일상적으로 지역의 예술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필요
- 지역에서의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예술인, 예술인단체의 내용적 참여 확대 필요(의사결정에 참여)
- 지역예술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에 대한 개방적 참여기회 확대 필요

• 공간과 인큐베이팅

- 개별예술활동을 위한 예술공간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기획 진행되는 형태의 공유 공간이 필요함(가칭 예술인 살롱)
-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워크숍이 다양하게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요파악을 통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 대한 예술적 활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

공론장의 다양한 목소리3 _ 활동형태

•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긴밀하고 유연한 정보 제공

- 의정부의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를 통한 다채널의 정보제공 필요
- 기존의 재단 유튜브 등의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의 예술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활동이 필요

• 신진(청년)예술인과 새로운 예술인들에 대한 열린 지원

-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한정적 트랙에 고착된 측면이 있음
-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신진예술가들이 커리어의 첫단추를 채울 수 있는 진입에 대한 지원 트랙 필요
- 외부에서 의정부로 유입되는 예술인들에게는 일단 활동의 시작을 위한 기초적 정보 제공이 필요함(공간, 사업 등등)
- 예술인들을 어디서부터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필요함

공론장 중간분석_SWOT

S •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중심성 • 오랜 예술 활동의 축적 • 규모있는 국제적 예술축제의 경험 • 적지않은 예술인	W • 전문화된 예술지원정책이 미성숙 • 지역예술계와 공공지원조직(문화재단)의 스킴 부족 • 지역예술 씬의 침체
O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도시정책에서 문화예술 관심 증대 • 예술계의 탈중심, 탈서울 경향의 가속화 • 문화적 욕구 증대	T • 대중교통발달로 인한 지역예술활동 니즈 감소 •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활동 증대로 인한 예술계의 침체 • 향유자의 대중문화산업 편중으로 인한 기초예술활동 침체

공론장 중간분석_의제 설정 방향

창작 지원	• 지원심의 전문성, 공공성 강화 • 창작분야, 단계별 특성화 • 지원사업 전과정에서 예술인 참여 확대 • 지역예술인 주도 축제
공간	• 기본적 인프라 확충(장기 과제) • 예술인 교류, 소통공간 마련 • 민간공간 활성화
예술인	• 예술 활동 안전망에 관한 인식개선 • 예술인 성장 프로그램 마련 • 예술인 참여 프로그램의 개방성
네트워크	• 지역 예술정보 플랫폼 활성화 • 공공인프라를 통한 지역예술활동의 외화 • 지역예술인·예술단체의 지속적 공론장 및 네트워크

심화단계(워킹그룹) 운영

그룹 1 예술인 지역예술인 성장지원 (주성진 멘토)	• 지역에서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방식과 내용은? • 문화기획, 예술행정, 관련 제도 등 예술활동 인접분야에 대한 교육 • 창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의 방향은? • 예술인에 대한 상시적 상담창구
그룹 2 예술공간 예술 매개 공간 조성 (안혜영 멘토)	• 지역 예술인들에게 오픈된 발표, 공유, 소통 공간의 방향은? • 공간의 운영 방안과 예술가 참여의 방안은?(예술인참여운영의 방향은?) • 공간에서 필요한 예술인 대상 프로그램의 방향은?

심화단계(워킹그룹) 운영

그룹 3 예술지원 창작지원 전문성 강화 (염신규 멘토)	• 지원심의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장르/분야에 따른 특성화된 지원은 가능한가? • 기존 지원방식 이외의 혁신적 지원방식(청년예술인 특화지원, 사전단계지원, 탈장르·장르융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룹 4 네트워크 지역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양재혁 멘토)	• 지역 예술인 간의 소모임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 • 지역예술인 협의기구 활성화 • 지역예술인 소통을 위한 온오프 플랫폼구상

문제점 정체성

‘예술가’로 살고 싶다.

시민, 기획자, 예술강사도 좋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냥 예술가’로 살 수 없나?

심화단계 운영 결과
(그룹1의 정리를 중심으로)

“시민, 기획자보다 예술가로 활동하고 싶다.”

“먹고 살기 위한 활동(교육 등) 때문에 창작을 할 여유가 없다.”

“새로운 실험을 하고 싶지만, 결국 사업 마감이 닥치면 익숙한 방식으로 결과를 만든다.”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다.”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자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의정부 시민들이 예술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의정부에는 무대가 많다. 하지만 그 무대들 속에 의정부 예술인들은 얼마나 있는가?”

문제점
활동

의정부가 서울에서 지리적으로는 가깝다는데
활동하면서 느끼는 ‘심리적’거리는 훨씬 더 멀다.

“뭘 공간마다 시청 담당자가 다 다른가. 시청 안에서 만보는 걸었다.”

“대학로에서 11시 30분이면 막차가 끊긴다. 찜질방 VVIP가 되었다.”

“전시, 공연 등에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주에도 용달차 눈탱이 맞았다.”

“공연 이외 예술가들도 관객을 만날 일이 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

“예술가 개인이 자신을 홍보하거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점
지원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술가’인 ‘나’를 정말 돕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순수한 창작지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사업에는 결국 서류만 잘 쓰는 사람이 선발된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의정부 지원사업은 붙어도 왜 붙었는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단체전 기회는 꽤 있지만, 개인전 기회를 주는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술의 전당 산하 문화재단인가? 문화재단 산하 예술의 전당인가?”

문제점 관계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술가인 ‘나’를 정말 돕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다른 예술가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다.”

“사업을 통해 많은 관계와 그룹들이 만들어지는데, 선뜻 후속 활동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예술전공자들이 의정부에서 롤모델을 찾기 어렵다.”

해결 방향

1. 의정부 시민 예술 소비환경 조성 및 예술 소비 경험 촉진
2. 의정부 예술가를 예술가로 지원하는 정책/사업 마련
3. 의정부 전시/공연의 의정부 예술인 비중 확대
4. 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한/ 사업을 통해 생성된 활동 그룹의 관계망 후속지원
5. 의정부 예술전공자들에게 의정부를 활동 거점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롤모델 연결
6. 비전용 예술공간의 리스팅 및 정보 공유와 채널 일원화
7. 의정부 예술가 브랜딩 지원/ 개인전 기회 확대
8. 이동/운반 등 창작 부대 활동 어려움 해결
9. 관리가 아닌 관계를 추구하는 지원사업 심사구조 마련
10. 예술교육 활동 지원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스스로 예술정책의 당사자로서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통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임
- 지역에서 필요한 예술정책을 발견하고 논의를 확장시킴
- 지역 안에서 예술인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협업하는 토대를 마련함

기대 이상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지

- 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짐
- 예술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언되었으며 분야별로 상당한 정도의 심화가 이루어짐
- 향후 지원기구(재단)와의 협업을 통해 현실화될 때 지역 자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마련됨

지원기구와 예술인 간의 신뢰형성이 공론장 “이후”의 성패를 가늠

- 공론장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담론장으로 작동할 때 유의미함
- 제시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중에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예술 지원 사업 전담팀의 필요성

- 장르와 영역을 망라하여 지역의 예술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재단 안에 필요함
-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지원사업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함

지역예술인과의 일상적 소통 담론공동체 필요

- 공론장과 같은 계기성 사업을 넘어서 일상적인 지원사업 영역에서 소통하고 매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일상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정책 아이디어와 니즈를 반영하는 지원사업의 환류 구조를 만들어야 함

예술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프로젝트의 필요

- 예술인들을 도구적, 기능적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 전반을 성장시키는 상향식 프로젝트 베이스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를 축으로 경기북부의 다양한 예술 인적자원들이 교류하고 협업하는 장으로 작동하게 한다면 파급력이 큰 정책이 될 수 있음



참고(그룹1의 사업제안)

사업 제안

의정부 시민 예술 소비환경 조성 의정부 시민 예술 소비 경험 촉진

□ 평알냉공(평먹고 알먹고 냉면먹고 공연보고)

- 예술소비 지역경제 동반 성장 프로그램
- 의정부 예술가의 공연을 의정부에서 관람할 경우 의정부 소상공인/노포/청년 창업 식당 식사권 제공 + 식사시 공연 할인권 제공
-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진행
- 월별 선착순 인원 제한으로 시범운영
- 시민들에게 made in 의정부 공연을 구분해볼/ 볼 동기를 제공

□ 의정부 예술 유모차 - 예술 소비 걸음마 지원 사업

- 의정부 시민이 의정부 작가의 작품을 첫 구매할 경우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시민의 욕구/필요/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가 추천
- 예술작품의 활용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마련 이벤트(ex. 작품 프로포즈)



참고(그룹1의 사업제안)

사업 제안

예술가를 예술가로 지원 의정부 예술인 비중 확대 의정부 예술가 브랜딩 지원

□ 의정부 이달의 예술가 프로젝트

- 월별로 4명의 예술가를 선발하여 개인전/공연/판매/브랜딩 통합 지원
- 전달에 후보자를 소개하고 시민 투표로 선정하는 과정 진행
- 연말 48명 예술가 중 올해의 예술가 선정, 차년도 창작 지원(텀블벅 선구매 방식 실험)
- 소비 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
- 시민이 일상 속에서 특별한 예술경험이 가능한 연결점 디자인(결혼식 등)

□ 예술가의 예술 프로젝트

- 공공의 위한 쓸모가 1도 없는 예술가 자신만을 위한 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
- 기대효과를 묻지 않고 편협함, 이기심, 자기에, 이상함 등을 기준으로 선발

□ 의정부 지역예술 워터/비중 촉진 : 비중 및 추이 조사



참고(그룹1의 사업제안)

사업 제안

의정부의 심리적 거리, 업무적 거리 줄이기

□ 의정부 예술인 트럭/버스 도입 운영

- 의정부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1톤 트럭 구입 및 예약/활용 시스템 구축
- 먼처 소지 예술가에게 동료 예술가를 만나면서 일할 수 있는 알바(?)기회 제공
- 의정부 예술인의 이동 수요 집중 발생 지역/시간대를 파악하여 의정부 예술인 버스 운영
- 공유경제 모델 고려

□ 의정부 공간/장소 활용 지원

- 관내 공간/장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협조 채널 일원화(2022년 12월 5일 시장님 구두 약속 사항, 김현주 예술가 요청), 의정부 예술가 대관 할인 정책 마련
- 전문 공연/전시 공간 이외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정보 아카이빙

□ 예술인 모두의 창고

- 예술가들을 위한 공용 창고를 마련하고 이용료 대신 의정부 관내 공연/전시 유치



참고(그룹1의 사업제안)

사업 제안

관리가 아닌 관계를 추구하는 지원사업 심사구조 마련

□ 심사과정 소통 프로토콜 마련 및 실험

- 심사평 및 의무화, 희망하는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설명회 시범 진행
- 사업별 특성과 의정부 문화도시 지향에 맞는 심사과정 공유 방식 실험(ex.마을사업-청년심사위원, 대규모 창작지원-유튜브 라이브 심사, 네트워크 사업-동료평가 등)

□ 문화도시 의정부 심사지표 개발

- 사업 영역별, 대상별 지표체계 개발 및 자연어 지표체계 적용
- 사업 참여자들과 '내가 1등 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워크숍 등을 통한 심사 지표 체계 다각화

□ 의정부 예술인 의회/ 의정부 다양성 의회



참고(그룹1의 사업제안)

사업 제안

인력이 아닌 동료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닌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지원사업

□ Made in 의정부 예술 그룹 지원

-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형성된 예술가 그룹 만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 지원
-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형성된 예술가 그룹 만을 위한 친목 활동 지원
-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형성된 예술가 그룹의 중앙 지원 사업 큐레이션 및 기획서 작성 컨설팅

□ 의정부 예비예술가-기성예술가 네트워킹

- 의정부에서 활동을 꿈꾸는 예술전공자/신진예술가와 의정부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예술가를 연결
- 의정부형 도제 매칭, 의정부형 예술기관 인턴쉽 등 구조적 지원과 상담, 차담, 수다 같은 비구조적 방식을 동시에 진행



참고(그룹1의 사업제안)

사업 제안

생존이 아닌 가치를 위한 예술교육 지원

□ 의정부 예술교육 실천가 학교

- 보다 완성도 높은 예술교육을 위한 부가적인 스킬(교육공학, 커뮤니케이션, 심리 등)을 학습하는 과정
- 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시민의 예술 리터러시를 높이고, 지역의 예술 소비로 이어져 예술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예술교육 그룹의 형성, 실험적인 커리큘럼 개발 지원
-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예술교육진흥원이나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감사합니다!!

토론1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남영호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의정부시 지역기반 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토론문]

남영호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김태우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에 대한 큰 흐름을 짚으면서도 지역의 세세한 사정을 바탕으로, 그리고 현장연구의 경험을 살려,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김태우 선생님의 글에는 제가 공감하는 바도 있고, 또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도 있어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마을 문화와 지역 문화

지역 문화 진흥의 기반으로 마을 문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또 마을 주민들의 참여에 기초해야 지역문화의 특색을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을 문화의 총체가 지역문화”(발표문 10쪽)일까요. 발표문의 다른 곳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마을 문화만으로 의정부 지역문화를 규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 11~13쪽에서는 의정부 지역문화를 도시 문화, 마을 문화, 역사 유산 문화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의 사례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마을 문화로 환원될 수 없는 여러 특징이 존재합니다.

서귀포시의 ‘노지문화’ 사례에 대한 설명에서, 서귀포시 지역 마을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전체 마을이 문화도시라고 했는데, 과연 도시는 구성요소인 마을의 총합일까요. 발표문 14쪽의 서술처럼 “지역 기반 문화정책이 마을만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 문화와...함께 마을 문화에 대한 정책이 균형을 이루며 진행 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의 본거지를 ‘마을’로”(발표문 2쪽) 규정하는 것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의정부 지역 기반 문화발전의 전략은 마을 문화를 진흥하고 지원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마을 문화로 포괄되지 않는 영역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도시와 마을

지역문화 정책에서 기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접근에 더해 인문학 또는 인문도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제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의정부시 문화 발전 전략의 비전으로 ‘사업’ 기반에서 ‘지역’ 기반으로의 전환을 제시한 점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역이란 주로 마을을 뜻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되지만, 마을과 도시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표문 10쪽에서는 마을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공동체성, 지속성,

자족성을 들고 있는데, 전근대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현대에 와서 과연 자족하는 마을이 존재할까요. 경제 활동의 범위, 교육, 문화 등의 여러 영역은 이미 도시에 걸쳐 있거나,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에 관련되기 십상입니다. 또 마을 문화의 성격으로 지속성과 함께 변화와 재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한 한국에서, 특히나 군부대, 미군부대의 주둔과 철수, 민락지구 같은 신도시의 건설을 경험한 의정부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시와 시골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 선진국 도시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생활양식과는 다른 도시의 생활양식을 도시성(urbanity)라고 한다면 그런 특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거 양식, 교통수단, 야간 생활, 문화적 다양성 등등. 그래서 도시 문화 또는 지역문화를 마을 문화의 총합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농복합 도시인 의정부의 문화는 마을 문화와 도시 문화의 중층적 결합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3. 문명과 도시

일반적으로 인류 문명은 도시의 탄생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논의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 아렌트가 주목했던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사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인 *polis*는 자연적인 요새, 정치 생활, 영토, 주민 등 많은 의미를 지녔지만, 한나 아렌트는 폴리스에서 도시 국가의 공적 영역을 논의하고 다루고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시작되었기에 문명의 발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도시이고, 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고대 로마 문명의 기원으로서의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활발한 정치가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city)는 고대 로마의 라틴어인 키비타스(*civitas*)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키비타스는 시민(*civis*)의 집합명사로 법적인 결사에 의한 인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모여 서로의 생활을 열고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도시에서 문명(civilization)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접근은 도시의 탄생과 의미에 대해 다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짚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 도시에서 문명이 탄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발표문에서 사용하는 마을 문명이라는 용어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접근이 서양 역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에서는 문명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문명과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만족할 수 없는 근거가 좀 더 상세하게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마을 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4. 세계적 전환

이 발표문에서는 현재를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바뀌는 세계적 전환의 시기로 규정하고, 생태적 전환, 철학적 전환, 경제적 전환, 문명적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더 보탬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전환이 발표문의 서술처럼 20세기가 끝날 무렵 시작되었다면, 발표문 3쪽에 인용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1940년대 발간된 “거대한 전환”은 시장경제가 기존의 사회질서를 파괴했고 노동, 화폐, 토지 같은 상품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들까지 경제의 영역에 포함 시킨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위 자기 조정적 시장이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성을 무너뜨리지만 사실 시장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비판합니다. 어찌되었든 만약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이미 저물고 있다면, 우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일까요. 마을 안에도 또 지역 안에도 세계적인 것(the global)이 이미 들어와 있으며, 또 세계화가 반드시 획일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언 [토론문]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지역민의 참여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는 지역민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 :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기반 필요.

협력과 연계 :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교육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해야함.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지원 : 지역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제도 및 시설 :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설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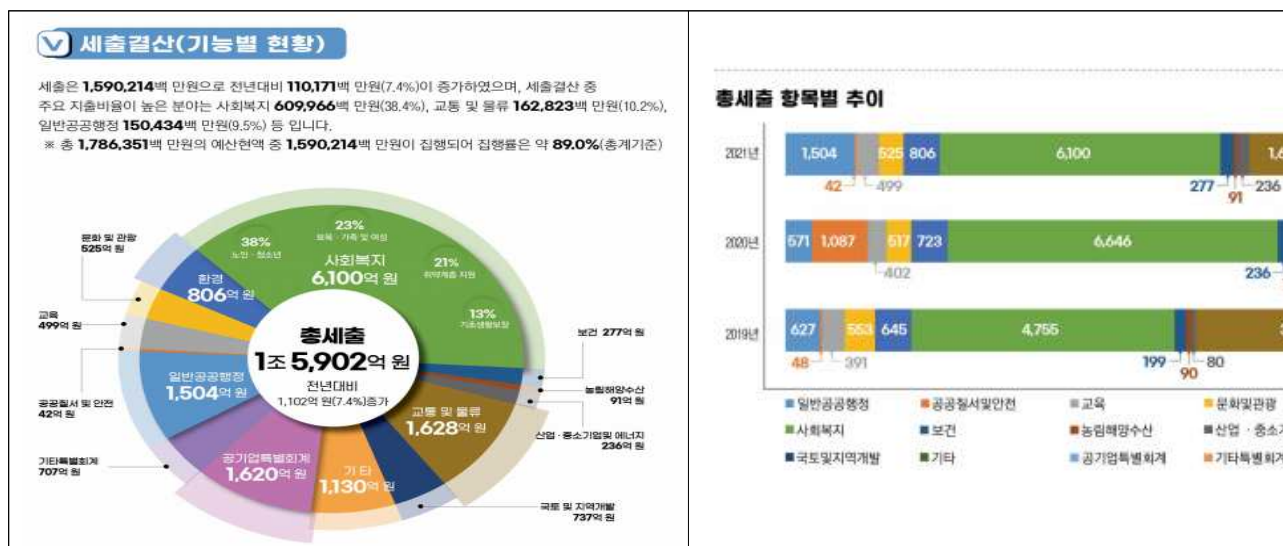
문화예술단체 지원 : 예술단체의 공연활동 지원, 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필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

문화예술축제 지원 :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대표 축제 및 문화행사 그리고 새로운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

결국 재원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 중앙정부에서도 지역간 문화 격차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예산과 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1년 의정부시 분야별 예산 집행현황]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

지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화예술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정부지원금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기반 정보와 계획, 차별화된 사업 모델, 예상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원 사업 참여 :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예산 확보.

기업 후원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기업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후원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스폰서십이 일반적이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단체가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폰서십 제안을 통한 예산 확보.

지역주민 기부 : 지역주민이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를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크라우드펀딩 : 인터넷을 활용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 홍보 등을 통해 대중의 참여 유도.

▶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문화산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크라우드펀딩은 대중들이 직접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화산업 창작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

① 강원도 양양군

2016년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강원도 양양군의 산악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으며 대상으로는 지역 주민, 관광객, 산악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프로젝트는 산악물의 생태계 보존 및 재생, 지역 주민과 산악인의 교류 및 연계,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00% 목표금액을 모금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② 충북 청주시

이 프로젝트는 지역 마을극장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마을극장의 설비 개선 및 확장, 지역극단과 예술단체 지원,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목표금액의 204%를 모금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③ 전남 여주시

"여수 영광마을, 숨은 명소와 향토음식을 찾아서"는 2018년에 진행된 프로젝트로, 전남 여주시 영광마을의 문화예술과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사례로 총 모금액은 1억 4000만원에 이르렀다.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을 사랑하고 기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부제도입니다. 고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모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수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지역민과 지역외의 기부자를 동시에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지역내에 있는 기업, 단체, 개인들과 협력하여 기부금액을 매칭 기부하는 방식 ② 모금 이벤트나 공연 등의 대중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 ③ 지역에서 유명한 예술가나 뮤지션들의 공연, 다양한 게임이나 경품추첨 등

제안

1. 의정부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투자하고 싶은, 동참하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만이 지향하는 차별화된 정체성이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환경운동 대표도시 :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덴마크의 코펜하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 ▶ 자전거 도로, 재활용 시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

자유평화운동 대표 도시 : 독일의 베를린, 덴마크의 코펜하겐, 스웨덴의 스톡홀름, 노르웨이의 오슬로 등

- ▶ 이 도시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전체적인 자유평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권운동 대표 도시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하네스버그, 미국의 워싱턴 , 중국의 베이징, 스위스의 베른 등

- ▶ 인권 운동과 인권 보호에 대한 노력과 역사가 매우 풍부하며 이러한 노력과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를 위한 노력과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의정부의 미래지향적 도시 정체성은 평화가 아닐까?

① BMF(블랙뮤직페스티벌): 한국전쟁과 유엔군, 미군 주둔 과정에서 의정부에 남겨진 블랙뮤직을 통한 평화의 이미지

※"블랙뮤직"은 인종적 차별과 억압의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난 문화 현상으로, 많은 흑인 아티스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창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음악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소울, 힙합, R&B, 재즈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됩니다. 특히 힙합과 R&B는 대중 음악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② 통일예술제 : 의정부의 대표축제였던 통일예술제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통일을 기원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정부에서 진행해온 대표 축제로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자 기획되었음.

③ 회룡문화제 :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갈등과 화해 스토리를 통해 의정부의 정체성 확인하고 특히 의정부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징과 도시이념을 확장해 화해와 포용의 정신을 평화의 메시지로 확장해가고 있음.

2.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한 전담팀 신설

『누가 담당할것인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장 시켜나갈 수 있는 전담인력 부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 후원, 지역주민 기부, 크라우드펀딩,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문화예술재원마련 방법은 다양한거 같지만 기본적으로 ① 강력한 기반 정보 ②수준 높은 계획 ③차별화된 사업 모델④예상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갈수록 투자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이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당연히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로 하는 전담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정부문화예술 자원 개발팀 구성

① 지역 자원 전문가 ② 홍보, 마케팅 전문가 ③ 행사기획 전문가 ④ 행정전문가 등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전담팀이 필요하다.

토론3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예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박상순
경민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 예술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토론문]

박상순

경민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

발제문은 2022년 의정부-경기북부예술인 공론장을 마치고 “의정부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예술가 활동 중심의 화두로 구성됩니다. 예술장르별, 활동형태별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에 도출된 문제 제기와 이어지는 해결방안의 제시까지 이어지는 의사교환이 예술가 집단 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중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46만 인구)는 시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예술 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01년 의정부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시문화예술 발전에 도약의 기회를 마련(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 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술활동환경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인근 도시의 공통된 딜레마인 문화블랙홀 서울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환경적 한계, 전문화된 예술지원정책 설계의 밀도 부족 그리고 지역예술가와 공공지원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구조의 느슨함 등은 지역 예술의 활기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요소이지만, 신규유입민의 증가,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욕구 증가, 다양한 측면에서 탈서울 경향의 가속화(탈중앙화) 그리고 문화를 도시발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구로의 인식으로 인한 도시정책의 전환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논의는 시의적절한 논의라 여겨집니다.

이는 의정부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자체의 존재감과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도시공동체의 모습에 다가가는 징검다리라 판단됩니다.

발제문을 읽어보면서 다음 4가지 측면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의정부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이 아니다. : **기초문화재단이다.**
 - 기관의 사명서(Mission Statement)를 근간으로 활동 방향과 예산의 한계를 신중하게 고려한 확장성과 밀도성을 시도함이 필요하다. 광역재단 활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공론의 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 가능치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균형감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시의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우선 사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2.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응집할 시발점이 필요하다. : **트리거가 필요하다.**
 - 공론장 관심 방향은 “창작지원-공간-예술인-네트워크”로 정리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여타 지역의 예술가들의 관심사와 유사하다.
 - 개선 팽창 욕구(창작지원-공간-예술인-네트워크)가 팽배한 환경 속에 분명 트리거는 있고, 이 트리거는 크고 웅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장하고 무게감이 없을 수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살펴볼 지점이다.

3. 확장성과 개방성에 기초한 지역성을 살펴보자. : **경직된 지역성에 가두지 말자.**
 - 의정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정체성이 도드라지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 분명 타지역과 구분되는 정체성은 있으나 혁혁한 구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 당위적 지역중심사고로 부터의 지역성 탐구는 부질없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미시적 접근 정도만 허락 되어지는 영역에 한정될 수 있다. 국내 지역 고유콘텐츠 영역에 있어서 중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 확장성은 객관적 공감에서 시작된다. 지역성을 역사 지리 문화에 국한하기보다는 다른 영역에서의 지역성을 분별해내는 시각이 필요하다. (예컨대; 생활과 이슈, 자연과 인간 등 연계된 열린 지역성에 대한 탐구, 통시적 시각에서 공시적 시각으로의 전환 등)

4.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예술활동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하다. : **플랫폼은 공기이다.**
 - 예술활동을 위하여 재단-예술가, 예술가-예술가, 예술가-예술소비자, 지역-지역, 장르-장르, 세대-세대 간 소통 플랫폼의 마련은 필수요소이다.
 - 문제는 얼마나 친숙하게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예술활동에 호흡과도 같은 플랫폼의 운영이다.

토론4

지역예술의 성장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지역예술가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찾기

김지훈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장

지역예술의 성장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지역예술가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찾기 [토론문]

김지훈

영등포 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장

발제자는 지역문화예술정책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급격하게 문화분권에
서 문화자치로 세분화 구체화되는 되고 있는 때에 경기도 북부의 대표적인 예술 썬
모델로 거듭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고찰
을 진행하였다. 구체적 사례는 2022년 경기북부예술인 공론장에서의 치열한 담론을
담아내며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예술인지원정책의 당사자성 등 문화재단의 비약적인
양적 증가로 기대되었던 지역 예술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예술인
지원 사업이 수요자의 니즈를 담아내는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고, 예술가를 예술
가로 지원하고, 예술가 브랜딩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한 세부적 요구로 뒷받침하고 있
다. 이에 지역에서의 예술진흥과 활성화에 대한 담론을 통해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
재단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지역 예술 정책이 당사자성을 외면한 현실.

도시의 문화 브랜드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출신의 예술가,
지역으로 이주한 예술가는 오히려 지역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화 분권과 자
치가 화두가 되기 전 지역 문화정책을 생각해보자. 지역의 문화예술분권을 위한 정책
은 중앙정부가 하드웨어의 설립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으며 문화원, 문예회관 등의
양적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였고, 후에는 수요층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설립된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에 방점을 두었다. 즉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이
라는 것은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당사자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앞선 문제의
대안 제시의 성격으로 추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 조직을 갖춘 지역
문화재단의 출범이었다지만, 그 실상은 문예회관의 운영 즉 시설 가동률과 관람객수,
판매수입에 성과 목표를 맞춰왔으며, 대부분의 지역 재단설립 운영 조례에 명시된 지
역문화예술의 진흥보다는 쉽게 간편한 방법으로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콘
텐츠를 지역에 유통하기 위한 경쟁과 더불어 기초 지자체 행정이 위탁하는 사업이 치
중되면서 지역예술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립은 뒷전이 되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재정 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작품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으나 지역 예술가의 주도적 참여와 활용보다는 유
명예술인들에게 의지하며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또 시설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면 한정된 예산의 한계로 지역예술가들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여 다양한 장르에 예술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다.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정책이 위와 같이 유사하게 추진되는 동안 의정부시는 발제자의 공론장 분석의 강점에 제시된 국제적 축제의 경험의 주인공인 의정부음악극 축제는 재단이 국제적 축제를 추진하는 업무적 역량강화 외에 의정부 시민들 외에도 관계시민과 직업예술인, 전문기획자들도 20여 년간 축제를 즐기며 축제기간을 기다리는 의정부 브랜드로 명성을 날렸다. 또 블랙뮤직페스티벌을 통해 지역대중 예술인과 페스티벌을 추진한 사례는 재단이 지역성의 드러내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며, 의정부시를 외부에 알리는 효자노릇을 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론장에서는 전문화된 예술지원정책의 미비, 지역예술계와의 스킴 부족, 향유자의 대중문화 편중,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침체 등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지역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역예술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의정부시의 지역 예술 활성화 대한 담론과 제언

공론장에서 창작지원, 공간, 예술인, 네트워크 분야별 아젠다를 설정하고, 제시한 여러 방법들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료임에 동의하며, 의정부시의 지역 예술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믿는다. 발제자가 제시한 공론장의 제언 중에서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가와 일상적 소통 담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환 과정을 의정부시가 시작했다는 것에 동의 하는가?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에 대해 몇 개의 질문을 간추려 보았을 때 명쾌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지역예술 활성화는 과연 무엇인가.

(보편적 문화콘텐츠의 문화 브랜드화는 지역예술인가 아닌가)

지역성을 대표하는 콘텐츠 발굴, 제작, 확산에 지역예술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역예술가의 범위는 무엇인가.

(의정부 지역연고를 가진 예술인가. 예술가는 순수예술 장르만 인정하는가)

의정부시민들은 지역예술가의 어떤 문화콘텐츠를 지지하고 있는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재단과 의정부시,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지역 예술 활성화로 풍요로운 의정부시가 되도록 창작지원 등 제시된 의제를 각자 서로의 역할대로 소통하며 공유하면서 다시 실천해 가는 과정과 보완의 과정을 지속하여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미래를 지역예술인과 함께 설계해 가기를 소망한다.

MEMO



MEMO



MEMO



MEMO

